



20대 청년층 취업자 감소 양상 산업별, 직업별 분석

2013.02.15 | 김수현 새사연 연구원 | sida7@saesayon.org

20대 청년층이 많이 일했던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과 같은 산업,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 종사자와 같은 직업에서는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다. 대신 기존에 20대 청년층이 많이 일하지 않았던 서비스직이나 판매직 등과 같은 직업과 농업, 어업 및 임업과 같은 산업에서는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다.

20대,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모두 감소한 유일한 연령 계층

2013년 1월 통계청의 발표¹⁾에 따르면 2012년의 청년층 취업자 수는 361만 2천 명으로 2011년과 비교했을 때 4만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도 58.1%로 0.4%p 줄어들었다. 연령별로 나누어 비교했을 때 이처럼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모두 줄어든 것은 20대가 유일하다. 15세 이상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12년의 취업자 수는 2,468만 1천명으로 2011년에 비해 43만 7천명 늘어났고, 고용률은 59.1%로 0.3%p 상승했다. 특히 50대 이상 중고령층에서는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모두 증가하면서 청년층과 상반되는 양상을 보였다.

청년층 취업자 수 감소는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는 문제이다. 2000년 449만 명이던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는 2012년 361만 2천 명까지 줄어들었다.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층, 청년층 일자리의 절대적 수가 감소한 것이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고용률 역시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2000년대 중반 이전 20대 청년층의 취업자 수 감소가 인구 감소에 어느 정도 비례했다고 한다면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인구 감소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1) 1월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12월 및 연간고용동향”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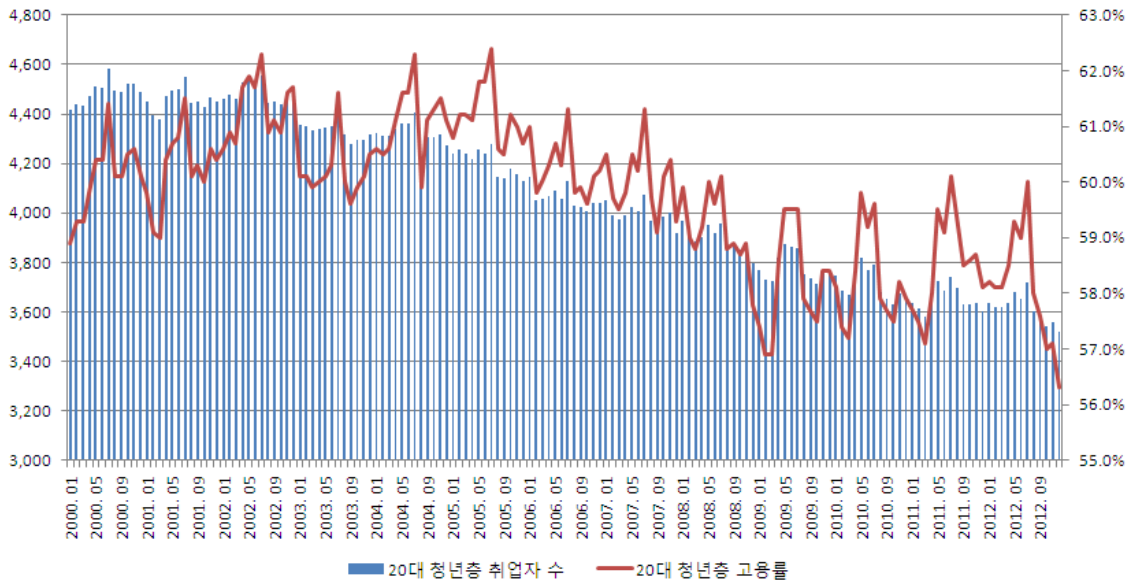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취업자 수가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2012년에는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와 고용률 모두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림 1] 2000년 이후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와 고용률 추이 (단위 : 천 명, %)



※ 취업자 수는 좌측 축, 고용률은 우측 축 참조

이런 청년층 취업자 수의 감소는 현재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좋은 직장이 없기 때문이든 아니면 일자리 자체가 없어서든 니트(NEET)족²⁾ 등과 같은 구직포기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좋은 직장을 위해 대학졸업을 늦추면서까지 스펙을 쌓는 학생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일하는 청년층의 감소로 이어져 청년빈곤문제와 학자금 대출 미상환으로 인한 청년 신용불량자의 양산이라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생산활동인구의 고령화나 숙련의 부족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켜 경제성장에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노동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본 청년층 취업자 감소의 원인

이런 청년층 취업자 감소의 원인은 노동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노동수요 측면은 노동을 수요하는 기업으로부터 기인하는 원인들을 의미하며, 노동공급 측면은 노동시장으로의 진출 여부를 결정하는 청년들로부터의 원인들을 가리킨다.

2) 니트(NEET)족은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고용된 상태에 있지 않으면서 교육이나 직업 훈련을 받지 않는 이들을 가리킨다.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먼저 노동수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청년층의 고용을 꺼리게 하는 경기불황과 경제적 불확실성과 관련한 기업의 전략을 청년 취업자 수 감소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 감소를 동반하는 경기불황 시기나 언제 경제위기가 닥칠지 모르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만연한 시기 기업들은 청년층의 신규고용을 줄이고 교육훈련 없이 즉각적으로 생산에 투입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한 비정규 경력직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르면 2000대 후반 지속되고 있는 소비침체와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전세계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청년층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더욱 치열해진 전세계적 수준의 경쟁 역시 청년층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세계화는 기업들로 하여금 과거보다 더욱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기업들이 임금이 낮고 해고비용이 저렴하며 즉각적으로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비정규직, 혹은 비정규 경력직을 채용하는 전략을 택하게 될 경우 청년층의 일자리,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청년층 취업자 감소와 관련된 노동수요 측면의 원인은 노동공급 측면의 원인에도 영향을 미친다. 경기불황, 경제적 불확실성, 세계화로 인한 경쟁의 심화 등으로부터 비롯된 불안정하며 임금 수준이 낮은 비정규직 일자리의 확대는 청년들이 노동시장 참가를 선택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과 같은 불안정하고 임금수준이 낮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일자리의 증가는 취업하기를 선택하기보다 졸업이나 취업을 미루고 스펙 쌓기를 택하거나,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들을 증가시켜 청년층 노동공급의 감소를 가져왔을 것이다. 또한 최근 급격히 증가한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역시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선호를 더욱 증가시켜 청년층의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같은 이유로 임금이나 복지에 있어 처우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의 현실 역시 청년층의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소기업에 일자리가 있다고 해도 임금수준이 낮고 일자리가 불안정하다면 청년들은 취업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청년층 인구 감소 역시 청년층 취업자 수 감소와 관련된 노동공급 측면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2000년 747만 4천 명이던 20대 청년층의 인구는 2012년 621만 9천 명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의 수를 줄임으로써 20대 청년층의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산업별, 직업별 20대 취업자 감소 양상 분석

20대 청년층 취업자 감소는 이와 같은 노동수요 측면과 노동공급 측면의 원인들 모두에 영향을 받아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청년층 취업자 감소는 산업별, 직업별로는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2011년 8월과 2012년 8월 자료를 활용해 2011년 대비 2012년 산업별, 직업별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 증감을 구했다. [표 1]은 산업별, 직업별로 2012년 8월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에서 2011년 8월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를 차감하여 산업별, 직종별로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준다.

[표 1] 2011년대비 2012년 산업별, 직종별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백 명)

직종 산업	1	2	3	4	5	6	7	8	9	계
1	0	-2	-6	0	-3	151	-5	3	-32	106
2	0	0	0	0	0	0	0	0	0	0
3	0	-138	-83	0	39	0	39	211	-196	-128
4	0	7	-2	0	0	0	0	-11	0	-7
5	0	0	-2	0	0	0	0	33	7	38
6	0	-79	-36	0	-6	0	-23	-25	65	-105
7	-3	-57	-185	-12	111	0	-23	-49	-1	-219
8	0	13	119	-16	1	0	-47	-46	44	68
9	-29	-15	7	158	51	0	54	2	119	347
10	7	-285	-134	-9	61	0	5	18	16	-321
11	14	17	-228	-8	-1	0	0	4	-42	-242
12	-9	-45	1	12	-26	0	-9	16	21	-38
13	0	7	-107	22	6	0	8	-6	-36	-105
14	0	11	-19	111	7	0	-45	43	-140	-32
15	6	26	-84	28	0	0	3	-9	7	-23
16	0	23	63	-6	0	0	0	6	-55	31
17	0	25	-99	21	0	0	6	0	-15	-63
18	0	-2	14	-162	12	8	9	0	1	-119
19	0	-62	-28	2	-10	0	-29	-3	-43	-174
20	0	5	0	0	0	0	0	0	0	5
21	0	0	0	0	0	0	0	0	0	0
계	-13	-554	-810	140	243	159	-55	187	-280	-982

※ 산업과 직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³⁾와 한국표준직업분류⁴⁾의 대분류를 사용함

3)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5.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업, 9. 숙박 및 음식점업,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1. 금융 및 보험업,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 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6. 교육 서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모두 감소

이상의 표를 바탕으로 몇 가지 특징들을 찾을 수 있다. 먼저 전체적으로 2012년 8월 현재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9만 8천 명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1년 8월 369만 8천 명이던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는 1년 사이 359만 9천 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세는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와 같은 비임금근로자 모두에서 관측되었는데, 임금근로자의 경우 342만 7천명에서 333만 명으로 9만 7천 명이 감소하였고,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27만 1천 명에서 27만 명으로 1천명 정도 줄어들어 비율상으로는 비슷한 수준의 감소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이 감소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가장 많이 증가

산업별로 보면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가 감소한 산업들이 다수를 이루지만, 숙박 및 음식점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운수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교육 서비스업 등의 몇몇 산업에서는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취업자 수가 감소를 보인 산업은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으로 3만 2천 명이 감소했다. 그리고 그 뒤를 금융 및 보험업 2만 4천 명, 도매 및 소매업 2만 2천 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만 7천 명, 제조업 1만 3천 명 등이 잇고 있다. 반면, 가장 많은 취업자 수 증가를 보인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3만 5천 명이 증가했고, 농업, 임업 및 어업이 그 다음으로 1만 1천 명이 증가했다.

사무 종사자 가장 많이 감소 판매 종사자 가장 많이 증가

직업별로 보면 판매 종사자(2만 4천 명),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1만 9천 명), 농림어업숙련 종사자(1만 6천 명), 서비스 종사자(1만 4천 명) 직업을 가진 20대 청년층 취업자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사무 종사자(-8만 1천 명),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5만 5천 명), 단순노무 종사자(-2만 8천 명),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6천 명), 관리자(-1천 명) 직업에서는 20대 청년층 취업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에서도 사무 종사자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직업에서 20대 청년층의 감소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스업, 1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0.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21. 국제 및 외국기관

4)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사무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6.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 노무 종사자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같은 산업에 종사한다 해도 직업에 따라, 반대로 같은 직업에 종사한다 해도 산업에 따라 취업자 증감 양상이 다르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들 중에서도 단순노무 종사자(-2만 명),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만 4천 명), 사무 종사자(-8천명)는 그 수가 줄어든 반면,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이라는 직업(2만 1천 명)을 가진 20대 청년층은 증가했다.

나아가 이러한 2012년의 산업별, 직업별 20대 청년층 취업자 증감([표 1] 참조)과 2011년 산업별, 직업별 20대 청년층 취업자 분포([부표 1] 참조), 2012년 8월 산업별, 직업별 20대 청년층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수준([부표 2] 참조)을 같이 놓고 보면, 2012년 20대 청년층 취업자 변화가 담고 있는 내용들을 찾을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대 청년층이 많이 일했던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과 같은 산업,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 종사자와 같은 직업에서는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다. 대신 기존에 20대 청년층이 많이 일하지 않았던 서비스직이나 판매직 등과 같은 직업과 농업, 어업 및 임업과 같은 산업에서는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다. 이는 노동수요의 변화로 인한 기존 청년층 일자리 변화와 이에 따른 노동공급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산업별, 직업별 임금수준을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임금이 낮은 일자리가 늘어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전반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증가한 양질의 일자리도 있다. [부표 2]와 [표 1]을 놓고 보면 금융 및 보험업,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를 중심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2012년 다른 연령대보다 낮은 20대 청년층의 임금증가 수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⁵⁾. 하지만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제조업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와 운수업 사무 종사자 같은 경우 2012년 들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최근 민간수요의 증가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사회서비스산업에서는 오히려 청년층의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사회서비스 산업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취업자 수 증가를 보여 온 산업이다. 특히,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 2012년 전년대비 8만 8천 명이 증가하여 가장 많은 취업자가 증가한 산업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들 산업에서 20대 청년층 취업자의 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도 6천 명 이상의 청년층 취업자가 줄어들었는데, 이는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사무 종사자가 크게 줄어든 데서 그

5) 2012년 8월 전체 임금근로자의 명목임금은 전년동월대비 9.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20대 청년층의 경우 7.9% 증가에 머물렀다.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원인과 산업별, 직업별 양상 고려한 체계적인 정책 마련해야

이상에서는 20대 청년층 취업자 감소 문제의 원인과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청년층 취업자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에 대해 노동공급 측면과 노동수요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하는 한편 이로 인한 청년층 취업자 변동에 대해 산업별, 직업별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년층 취업자 감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필요할까?

이명박 정부는 청년층 취업자 수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창업지원, 청년인턴제, 청년층의 해외취업지원, 단기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여러 정책을 실시했다.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취업자 수, 일자리 수의 감소는 지속되고 있으며, 고용률 역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이전 정부의 정책들이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단기적이고 노동공급 위주의 양적 확대에만 초점을 맞춘 성과위주의 정책들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자리의 질적 측면 개선 없는 성과위주의 단기적인 노동공급 확대 정책은 해결책이 되지 못한 것이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청년층 취업자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공급 촉진책과 함께 청년층 취업자 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수요 측면의 원인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일시적인 고용지표 개선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정부의 개입을 통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의 노동수요를 확대시키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 정책은 노동수요를 확대하는 한편, 자발적인 노동공급 역시 증가시켜 청년층 취업자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공공부문과 대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나 정부의 직접투자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정책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양질의 일자리 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산업별, 직업별 청년 노동시장의 현실을 고려한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별, 직업별로 20대 청년층의 취업자 감소 문제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고, 청년층 취업자들의 분포도 다르며, 임금 수준과 같은 처우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산업별, 직업별로 필요한 정책이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임금수준도 높고 청년층이 많이 일하고 있는 산업에서 청년층 취업자 수가 심각하게 감소되었을 경우 이는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문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면서 일자리 수를 늘리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반면, 임금수준이 낮은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산업에서 청년층 일자리 수가 감소했다고 한다면 일자리 수의 감소도 원인일 수 있지만 해당 산업의 청년층 노동공급이 감소했기 때문일 수 있다. 이 경우 임금, 복지수준 등의 처우개선에 중점을 둔 일자리 확대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 내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의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정책으로 실업부조를 토대로 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노동시장이 원하는 노동력과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노동력 사이의 간극을 줄이고, 비대칭 정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일치를 해소하는 정책임과 동시에, 실업부조의 제공을 통해 청년빈곤층, 청년신용불량자 등 청년층의 생계유지를 돕고, 교육훈련을 통해 기업들이 원하는 숙련수준을 가진 노동자를 양성함으로써 청년층 취업자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정부지원 민간주도 형태의 교육훈련이 아닌, 정부, 지방정부, 기업, 지방거점 대학,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직업훈련제도 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다.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부표 1] 2011년 8월 산업별, 직업별 20대 청년층 취업자의 분포 (단위 : %)

직종 산업	1	2	3	4	5	6	7	8	9	계
1	0.0%	0.0%	0.1%	0.0%	0.0%	0.4%	0.0%	0.0%	0.2%	0.7%
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3	0.0%	2.9%	4.4%	0.0%	0.1%	0.0%	1.7%	5.1%	2.2%	16.5%
4	0.0%	0.0%	0.1%	0.0%	0.0%	0.0%	0.0%	0.0%	0.0%	0.2%
5	0.0%	0.0%	0.1%	0.0%	0.0%	0.0%	0.0%	0.0%	0.0%	0.1%
6	0.0%	0.9%	1.5%	0.0%	0.0%	0.0%	0.9%	0.2%	0.3%	3.8%
7	0.0%	1.1%	4.0%	0.1%	9.1%	0.0%	0.3%	0.4%	1.2%	16.2%
8	0.0%	0.0%	1.0%	0.3%	0.0%	0.0%	0.1%	0.4%	0.4%	2.3%
9	0.1%	0.2%	0.4%	5.8%	0.7%	0.0%	0.1%	0.0%	0.8%	8.1%
10	0.0%	3.4%	1.5%	0.1%	0.2%	0.0%	0.2%	0.0%	0.0%	5.5%
11	0.0%	0.3%	3.6%	0.0%	0.4%	0.0%	0.0%	0.0%	0.2%	4.5%
12	0.0%	0.3%	0.2%	0.0%	0.1%	0.0%	0.1%	0.0%	0.0%	0.9%
13	0.0%	3.3%	3.2%	0.0%	0.0%	0.0%	0.1%	0.1%	0.1%	6.9%
14	0.0%	0.3%	1.7%	0.7%	0.3%	0.0%	0.4%	0.3%	1.0%	4.6%
15	0.0%	0.2%	1.3%	0.4%	0.0%	0.0%	0.0%	0.0%	0.0%	2.0%
16	0.0%	8.8%	1.7%	0.0%	0.0%	0.0%	0.0%	0.0%	0.2%	10.7%
17	0.0%	7.9%	1.5%	0.4%	0.0%	0.0%	0.0%	0.0%	0.2%	9.9%
18	0.0%	0.9%	0.6%	1.5%	0.2%	0.0%	0.0%	0.0%	0.1%	3.3%
19	0.0%	0.4%	0.6%	1.7%	0.1%	0.0%	0.9%	0.1%	0.2%	4.0%
2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계	0.2%	31.0%	27.4%	11.2%	11.2%	0.4%	4.9%	6.6%	7.1%	100%

※ 산업과 직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⁶⁾와 한국표준직업분류⁷⁾의 대분류를 사용함

6)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5.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업, 9. 숙박 및 음식점업,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1. 금융 및 보험업,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 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6. 교육 서비스업, 1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0.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21. 국제 및 외국기관

7)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사무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6.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 노무 종사자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부표 2] 2012년 8월 산업별, 직업별 20대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단위 : 만원)

직종 산업	1	2	3	4	5	6	7	8	9	계
1	-	210	162	-	-	153	-	150	67	137
2	-	-	-	-	-	-	-	-	-	-
3	-	211	194	-	178	-	196	187	118	187
4	-	236	174	-	-	-	-	-	-	198
5	-	-	123	-	-	-	-	150	150	141
6	-	231	175	-	-	-	156	232	111	175
7	270	185	160	90	133	-	165	168	119	143
8	-	170	181	303	222	-	130	192	137	188
9	180	159	164	101	74	-	184	200	95	104
10	350	214	207	150	101	-	154	186	85	197
11	300	290	202	-	204	-	-	150	175	211
12	-	229	163	159	94	-	169	150	122	167
13	-	210	174	190	174	-	218	173	100	192
14	-	131	147	130	115	-	141	148	117	136
15	100	220	158	264	-	-	170	-	187	196
16	-	151	120	-	-	-	-	180	130	145
17	-	160	159	123	-	-	150	-	96	158
18	-	124	144	95	61	180	160	-	59	112
19	-	91	133	129	120	-	164	126	150	135
20	-	-	-	-	-	-	-	-	-	-
21	-	-	-	-	-	-	-	-	-	-
계	260	178	172	124	129	158	176	183	114	160

※ 산업과 직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⁸⁾와 한국표준직업분류⁹⁾의 대분류를 사용함

8)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5.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업, 9. 숙박 및 음식점업,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1. 금융 및 보험업,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 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6. 교육 서비스업, 1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0.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21. 국제 및 외국기관

9)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사무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6.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 노무 종사자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2013년 새사연 이슈진단 목록

2012년 2월 15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고용, 소득	1/3	청년일자리 현황과 과제	김수현
2013년 전망	1/6	2013년, 박근혜 정부 정책 불확실성이 가장 큰 위험요인	김병권
2013년 전망	1/7	2013년, 피할 수 없는 세계경기 장기침체	여경훈
2013년 전망	1/9	2013년, 한국경제 '국민 행복시대'로 갈 수 있나	정태인
2013년 전망	1/14	2013년, 계속되는 노동시장 문제들	김수현
2013년 전망	1/16	협동조합 확산 예상, 우리사회 대안이 되길	이수연
2013년 전망	1/21	박근혜 정부와 경제민주화의 방향	김병권
2013년 전망	1/23	2013년 가계부채 위험을 어떻게 대처할까	김병권
저출산	1/28	박근혜표 무상보육의 한계와 과제	최정은
2013년 전망	1/29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앞서 주거복지 진전을	진남영
사회적경제	2/4	차별과 위기를 극복한 퀘백의 사회적 경제	이수연
연금개혁	2/5	안전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논의	이은경
2013년 전망	2/7	사교육비를 더 늘리거나 아예 포기하거나	김병권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